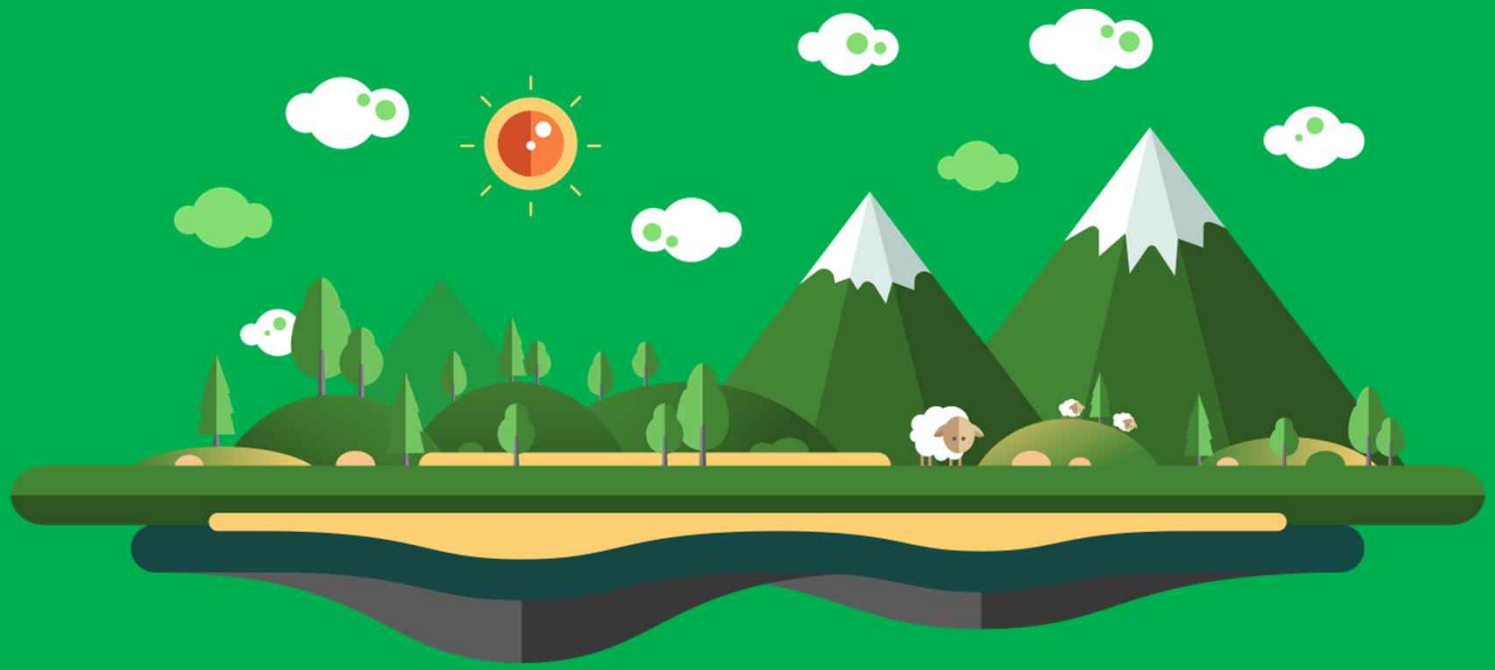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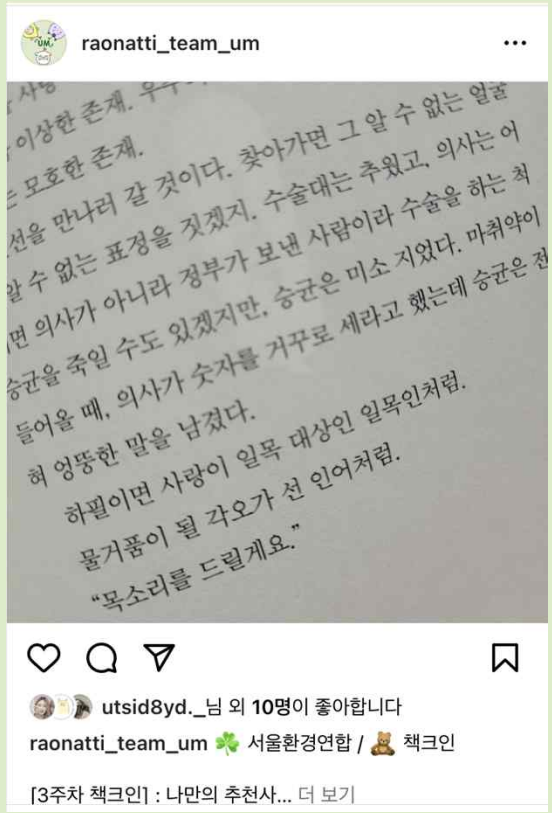
Team Um
월별 보고(11월)



01 북클럽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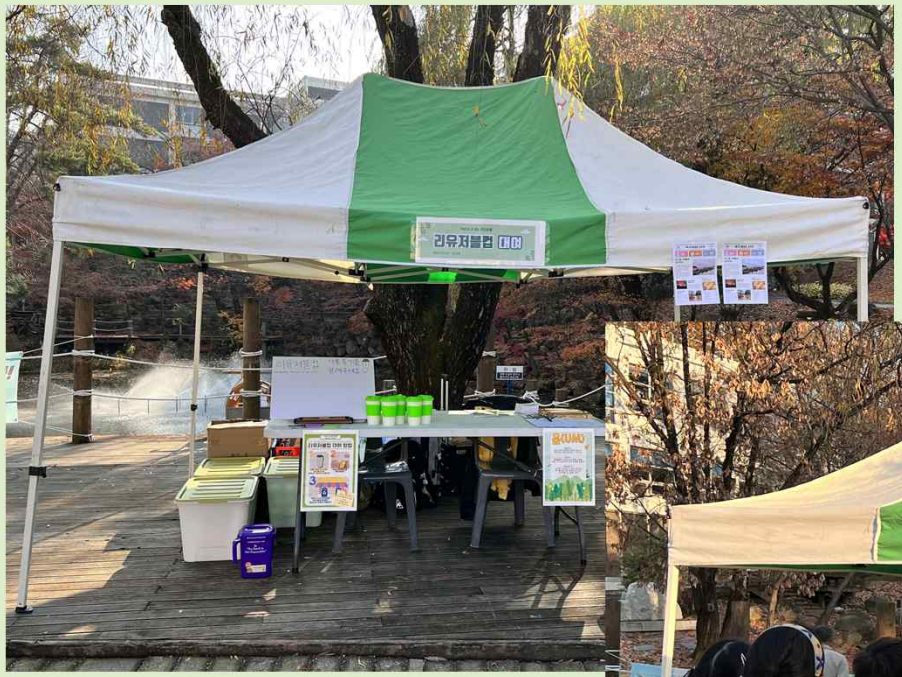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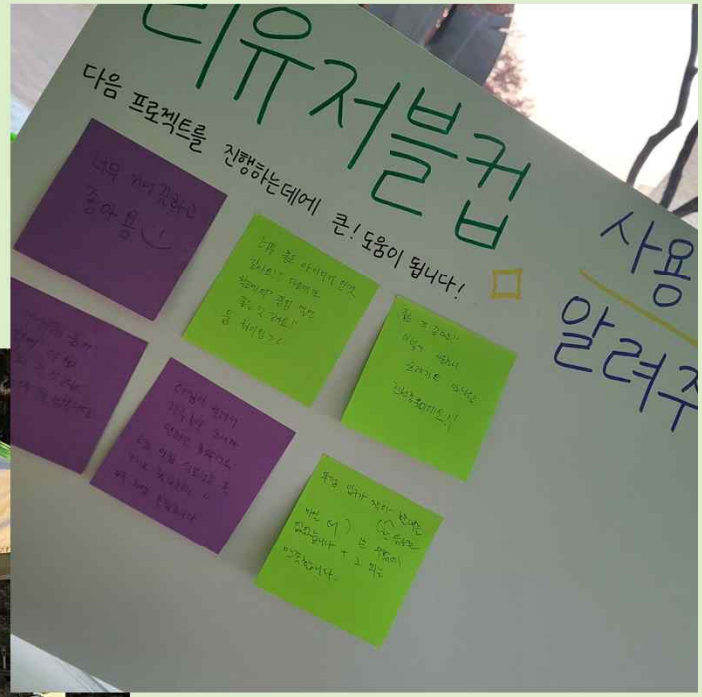
SNS를 통해 환경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

02 업사이클링 파티 방문

부스 레퍼런스 조사 및 업사이클링 관련 정보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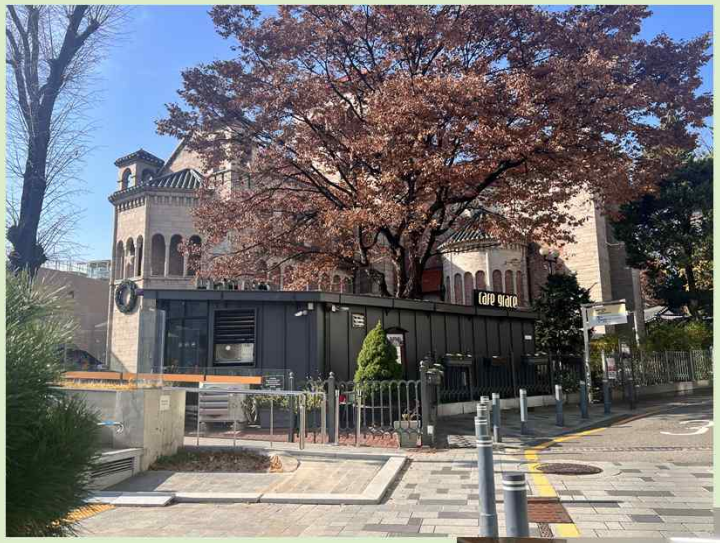
03 서울대 리유저블컵 대여 사업





리유저블 대여 사업 & 환경 게임 부스

04 그레이스 카페 리유저블컵 대여 사업



05 캄보디아 비대면 해외교류 – 중간보고회

진행 상황 공유 & 질의응답

05 활동평가 및 소감

김서진

11월은 우리가 계획했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달이었다. 리유저블컵 대여 사업을 시작하기 전, 과연 많은 사람들이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을 크게 가질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시행한 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호활동에 관심이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얘기를 해주시는 등 예상보다 큰 관심에 사업을 진행하는 내내 뿌듯함과 안도감이 들었던거 같다. 서울대와 그레이스 카페 프로젝트를 마치고 난 후에는 리유저블컵 관련 시장 조사와 소비자 파악 등을 더 자세히 했다면 리유저블컵 이용자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다음 환경 관련 활동을 진행할시 11월달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아쉬운 점들을 보완하여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겠다고 느꼈다. 더불어 우리 팀이 진행했던 리유저블컵 대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보며 우리의 목표에 도달하고 싶다.

05 활동평가 및 소감

박수현

11월은 우리가 계획했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달이었다. 리유저블컵 대여 사업을 시작하기 전, 과연 많은 사람들이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을 크게 가질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시행한 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호활동에 관심이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얘기를 해주시는 등 예상보다 큰 관심에 사업을 진행하는 내내 뿌듯함과 안도감이 들었던거 같다. 서울대와 그레이스 카페 프로젝트를 마치고 난 후에는 리유저블컵 관련 시장 조사와 소비자 파악 등을 더 자세히 했다면 리유저블컵 이용자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다음 환경 관련 활동을 진행할시 11월은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온 달이었다. 사실,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설렘보다 걱정이 더 컸다. '과연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소규모 프로젝트가 효과가 있긴 한 걸까?' 하는 수많은 부정적 의문들에 휩싸였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결과는 예상밖이었다. 많은 분들이 자원순환의 필요성에 동감해주셨고, 우리의 프로젝트를 지지해주셨다.

이 과정에서, 과한 두려움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느꼈다.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는, 일어나지도 않은 수많은 변수들에 집착하며 지레 겁먹었었는데, 생각해보면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었다.

앞으로 남은 2달의 활동들 역시,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점에서 종종 멈칫하고 망설이겠지만, 그때마다 이번 활동이 주었던 설렘과 뿌듯함을 되새기며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11월달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아쉬운 점들을 보완하여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겠다고 느꼈다. 더불어 우리 팀이 진행했던 리유저블컵 대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보며 우리의 목표에 도달하고 싶다.

05 활동평가 및 소감

손다은	11월에는 실제로 우리가 기획했던 행사를 해볼 수 있었다. 행사는 마냥 생각했던 것 처럼 쉽지는 않았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시장 조사 및 체계를 설명하는 과정이 부족했다. 따라서 더 많은 참여자를 유치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그래도 부족함을 토대로 발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다. 이번 행사들이 끝이 아닌 더 좋은 기회를 얻고 이 점들을 보완한 좋은 행사를 기획 중이다. 다들 바쁜 하루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또 다른 사업을 기획하는 것을 보고 협동의 즐거움도 느끼고 있다.

05 활동평가 및 소감

이유림	회식자리에서 나를 소개하는 것도 부끄러운 내가 낯선 사람을 붙잡아 세우고 말을 걸 줄이야. 상상이나 해봤는가. 놀랍게도 11월은 이러한 도전의 연속이었다. 그야말로 나에게는 '상상도 못한 달 ' 이다. 차근차근 준비한 사업을 드디어 실시했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뿌듯함을 느끼기도 전에 열심히 까이고 구르며 절망감을 느껴야만 했다. 그럼에도 좋은 일을 한다며 한 마디 던져주고 가는 사람들, 안쓰러운 눈으로라도 컵을 이용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찾아와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며 나는 한 줄기의 유의미한 희망을 도출했다. 바로 우리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플라스틱 소비 감축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 이용자들에게 지적 받았던 문제점들과 우리 내에서 이야기 나왔던 구조적 불완전함을 수정하고 다듬는다면, 깊이 있는 조사를 거친다면, 그래서 나름 온전한 시스템을 상상할 수 있다면. 벌써 11월이고 프로젝트 기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05 활동평가 및 소감

황성윤	그동안 준비해왔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던 달인 만큼, 가장 일이 많았던 11월이었다. 매일 밤마다 취침 시간을 미뤄가며 회의를 하고 꼼꼼히 준비했음에도,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자꾸 발견되었다. 실제 시행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시간을 쪼개가며 각자의 업무 이상으로 노력했고,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시뮬레이션 시간도 여러 차례 가졌다. 덕분에 1차 프로젝트였던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 리유저블 컵 대여 부스]와 2차 프로젝트였던 [카페 그레이스 내 리유저블 컵 대여 서비스]를 무탈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두 프로젝트 모두 촘촘히 준비했던 덕에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었으며, 괜찮은 성과도 있었다. 다양한 피드백도 받으면서, 우리가 잘했던 점은 어떤 것이며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여러모로 의미 있던 한 달이었다. 환경을 보호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사람들의 인식을 조금이나마 바꾸고 싶다는 우리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된 것 같아 정말 뿌듯하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일도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다.